

버나디나 '쾌청' ... 팻딘 '흐림' ... 헥터 '먹구름'



버나디나

KIA '외국인 호랑이 3총사' 엇갈린 시즌 기상도



팻딘



헥터

외인 연봉킹 헥터, 9승 8패·결정적일 때 피홈런 위기의 남자 팻딘, 불운에 부진 겹쳐 불펜으로 공수 핵 버나디나, 팀 침체 속에도 빛나는 존재감



우승 공신이었던 '외인 호랑이 3총사'의 시즌 기상도가 엇갈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헥터 노예시, 팻 딘, 로저 버나디나로 외국인 선수 세 자리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KIA 우승에 기여하면서 두 두둑한 연봉과 함께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기대와는 다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세 선수의 기상도는 버나디나 '맑음', 팻 딘 '흐림', 헥터 '흐리고 비'다.

지난해 '20승·200이닝'을 달성한 헥터는 올 시즌 30만 달러 인상된 총액 200만 달러를 받으면서 외국인 선수 연봉킹이다.

헥터는 2년 연속 리그 최다 이닝과 팀 내 최다승을 기록하며 특급 외국인 선수로 활약을 했지만 올 시즌에는 앞선 시즌에서 보여줬던 위압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야수들의 수비 도움이 따르지 않는 등 운도 없지만 위기에 취약한 모습이다.

지난해 30경기에서 20승을 거둔 헥터는 올 시즌에는 22경기에 나와 4.63의 평균자책점으로 9승 8패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21개의 피홈런을 기록했던 헥터는 19개의 홈런을 내주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한방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피안타율은 0.319에서 0.340으로 높아졌고, 이닝당 출루허용률도 1.32에서 1.44로 나빠졌다.

승리를 부르던 헥터의 승률은 0.529로 뚝 떨어지는 등 최고의 몸값을 기록한 시즌이지만 성적은 가장 좋지 못했다.

팻딘은 지난해에도 '위기의 남자'였다.

정규시즌 중반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팻딘은 후반기에 반전을 이루면서 선발진의 중심이 됐다. 그리고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7이닝 3실점의 호투를 하며 재계약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연봉도 2만5000달러 인상되면서 92만 5000달러가 됐다.

올 시즌 첫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되면서 기분 좋게 2018시즌을 출발했지만 팻딘의 불운은 올해도 계속됐다. 불펜의 난조와 야수들의 침묵으로 번번이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팻딘은 결국 부진에 빠졌고, 전반기에 단 2승을 거두는 데 그쳤다.

결국 후반기에는 불펜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불펜 이동은 팻딘에게는 반전의 계기가 됐다. 팻딘은 구원으로 나선 3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하며 2승 1홀드를 챙겼다.

헥터의 허리 부상으로 4이닝 소화 이후 4일 만에 선발로 등판해 6회를 책임져주기도 했다. 하지만 팻딘은 지난 5일 두산전 선발로 나왔다가 오른쪽 정강이에 공을 맞으면서 엔트리에서 말소되는 등 또다시 불운에 올랐다.

팻딘은 16일 엔트리에 재등록돼 롯데와의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다.

내년을 장담할 수 없는 두 투수와 달리 버나디나는 그나마 재계약 안전권에 있다. 버나디나는 지난 시즌 초반 부진을 털고 KIA 외국인 타자의 역사가 됐다.

팀 역대 최초로 100타점·100득점을 기록했고, 팀 외국인 선수 최초의 사이클링히트의 주인공 자리도 차지했다. '20(홈런)-20(도루)클럽'에도 가입한 버나디나는 지난 시즌보다 25만 달러 인상된 총액 100만 달러에 KIA에 잔류했다.

전체적인 팀 공격의 침체 속, 강렬했던 지난해 모습에는 살짝 부족하고 실수도 늘었지만 버나디나는 여전히 공·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3일 현재 19개의 홈런을 날린 그는 27개의 도루로 리그 1위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20·20'도 예약해냈다.

아직 시즌은 남았고, 막판 스퍼트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세 외국인 선수가 남은 시즌에서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KIA의 성적과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아산과 1-1 8경기 연속 무패 질주

광주 FC가 8경기 연속 무패 질주를 이어갔다.

광주는 지난 1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산 무궁화와의 2018 K리그2 23라운드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두 경기 연속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두 경기 연속 무승부에 만족했지만, 8경기 연속 무패(3승 5무) 행진을 펼치며 4위 자리를 지켰다.

앞선 대전전 정영총에 이어 이번에는 세 외국인 선수 펠리페가 골 맛을 보며 아시안게임 대표로 참가한 '에이스' 나상호의 공백을 잇게 해줬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펠리페가 데뷔골을 터트리면서 환호했다.

왼쪽 코너에서 두현석이 뒤에 있던 이요뜸에게 공을 넘겼다. 그리고 이요뜸이 왼발로 크로스한 공을 중앙에 있던 펠리페가 머리로 받아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전 점유율에서는 30대 70으로 밀렸지만 광주는 여러 차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산을 압박했다. 하지만 전반 종료 직전에 아산의 구대영이 중거리 슈팅을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 골은 2014년 안양에서 프로 무대에 뛰어든 구대영의 프로 데뷔골이기도 했다.

전반전을 1-1로 마무리한 뒤 후반전에는 퇴장이라는 악재가 발생했다. 후반 23분 판정예 항의하던 박진섭 감독이 레드 카드를 받았다.

광주는 후반 37분 임민혁에 이어 41분 두아르테를 투입하면서 마지막 공세에 나섰다. 아쉽게 추가골에 실패했다.

지지 않는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광주는 19일 오후 7시 서울 이랜드와의 홈경기를 통해서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새 홈구장 안전 시스템 문제 손흥민의 토트넘 이사 미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새 홈구장 이사가 '안전 문제'로 늦춰지게 됐다.

토트넘은 영국 런던 화이트 하트 레인에 들어서는 6만2000석 규모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치를 예정이던 내달 15일 리버풀전을 기존에 홈구장으로 사용하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치르게 됐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구단은 "최근 점검 결과 새 구장에 중요한 안전 시스템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오는 27일과 내달 1일 테스트 매치를 치를 수 없어서 공식 경기 일정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홈런 감 잡은 이명기 웃음꽃 "이 느낌 오래 오래 ~" 불방망이 식을라 ... 김기태 감독 "월요일이 아쉬워"

덕아웃 T 특독

▲오래 가라 = '감 잡은' 이명기는 14일 경기 전까지 8월 8경기에서 0.378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KIA 공격에 활로가 되고 있다. 지난 주말 SK 원정에서 '친정'을 상대로 홈런을 날리는 등 8월 2개의 홈런도 기록했다. 14일 LG와의 경기에서 앞서 "봉사 문고 리 잡았다. 운이 좋았다"며 홈런 소감을 밝힌 이명기는 "(감아)오래 가라"면서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17일 경기를 끝으로 아시안 게임 휴식기에 들어가

야 하는 상황. 이에 이명기는 "감은 좀지만 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휴식기를 만끽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 주말 2경기에서 4홈런을 날리고 온 이명기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씩씩하게 웃었다. 이명기는 지난 11일 6월 20일 이후 첫 홈런을 기록한 데 이어 12일에는 연타석 홈런 포함 3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넘겼다. 한화 시절이던 2009년 4월 30일 이후 두 번째. KIA에서 처음 기록한 3홈런이었다. 이명기는 "하나씩 하자"는 생각이다. 안타, 홈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이기는 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

다.

▲주말에 터지고 쉬네 = 월요일이 아쉬운 김기태 감독이다. KIA는 지난 주말 SK와의 2연전에서 12개 홈런 포함한 장단 49안타로 39점을 만들면서 2승을 거두고 돌아왔다. 14일 LG와의 경기에서 앞서 앞선 두 경기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주말에 터지고 나면 쉬는 날이다"고 웃었다. 또 "지난 해에는 (몰아치는 게) 강점이었는데..."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지난해 꾸준한 폭발력을 과시했던 KIA 타선은 올 시즌 극과 극의 행보를 하고 있다. 특히 일요일에 뜨거운 화력을 보이다가 하루 쉬 뒤 맞는 화요일 경기에서는 주춤한 모습이다. KIA는 올 시즌 일요일에 치른 17경기에서는 0.351에 이르는 팀 타율로 11승 6패를 기록하고 있다. 14일 경기 전까지 화요일 17경기 타율은 0.279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 정규시즌에도 1군 선수들과 생활할 것"

스페인 수페르데포르테 보도

"발렌시아 감독 1군 훈련 결정했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1군 무대 데뷔 골을 터뜨린 이강인(17·발렌시아)이 정규시즌에서도 1군 선수들과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스페인 현지 매체 수페르데포르테가 보도했다.

수페르데포르테는 14일 "이강인은 2018-2019시즌 1군에서 훈련할 것"이라며 "발렌시아 마르셀리노 토랄 감독은 이 같은 계획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은 새 시즌 주중엔 1군 선수들과 훈련한 뒤 주말에 2군 복귀해 실전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강인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본 발렌

시아 마르셀리노 감독이 그를 1군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일원이 되기 위한 과정을 성실하게 밟고 있다"며 "그는 성인 선수 못지않은 성숙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현재 발전 속도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칭찬했다.

다만 당장 정규시즌 1군 무대를 밟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페르데포르테는 "이강인은 당장 1군 경기를 뛰어도 손색이 없지만, 마르셀리노 감독은 이강인에게 당장 큰 역할을 맡길 경우 많은 부담으로 인해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단이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강인이 1군을 오가며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은 뒤 추후 안전하게 1군 선수

단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이 우수한 선수로 성장할 경우, 발렌시아 구단이 전력 상승 외에도 아시아 등 축구 신흥시장에서 상업적인 효과 등 부가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발렌시아 구단과 팬들은 이강인이 특별한 선수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고 있지만, 너무 급하지 않게 이강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권했다.

한편 이강인은 지난 12일 스페인 발렌시아 에스타디 메스타야에서 열린 프리시즌 레버쿠젠(독일)과 출정식 경기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41분 헤딩으로 골을 터뜨렸다. 프리메라리가 사무국은 골 세리머니를 하는 이강인의 사진을 리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스페인 현지매체 수페르데포르테가 14일(한국시간) "이강인(발렌시아)은 2018-2019시즌 1군에서 훈련할 것"이라며 "발렌시아 마르셀리노 토랄 감독은 이 같은 계획을 결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지난 12일 이강인이 스페인 발렌시아 에스타디 메스타야에서 열린 프리시즌 레버쿠젠(독일)과 출정식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는 사진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

<프리메라리가 인스타그램 캡처>